

# 전주시민축구단, 홈 2연승 달성

K4리그 2022 5라운드  
대구FC B팀과 경기에서  
양태렬·김도형 연속골  
2-0 승리... 내달 6일 고양 원정



지난 27일 전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4리그 2022' 5라운드 대구FC B팀과의 경기에서 양태렬이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전주시민축구단(이하 전주)이 홈에서 승리하며 2연승을 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는 지난 27일 전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4리그 2022 5라운드 대구FC B팀과의 경기에서 양태렬과 김도형의 연속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전주는 승점 10점(4승 1무 1패)을 기록, 고양FC축구단(승점 11점, 3승 2무)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경기초반 전주는 상대를 압박하면서 전방에서 양태렬과 김도형, 오태환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회를 만들었다.  
오히려 전반 32분 실점위기가 찾아 왔다. 여인혁이 빈 골문으로 향하는 공을 가까스로 걷어낸 공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실점위기에 서 벗어났다.  
이후 양 팀은 중원에서부터 강한 압박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됐지만, 골을 기록하지 못한 채 전반을 0대0로 마쳤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전주는 선수를 교체하는 등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고 결국 후반 5분 첫 골이 터졌다.  
이태훈의 롱 패스를 받은 양태렬이 상대 중원에서 중거리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양태렬은 이날 골을 기록하면서 5골로 득점 1위에 올랐다.  
대구는 실점 후 골을 기록하기 위해 오후성을 빼고 박용희를 투입하는 등 전주의 골망을 노렸다.  
하지만 전주는 후반 14분 김도형이 팀에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김도형은 중원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면서 솟은 공이 상대 골키퍼 막고 흘러나온 공을 재차 슈트로 골을 기록했다.

전주는 이후 수비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대구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경기를 2대0 승리로 마쳤다.  
전주는 이날 경기장을 찾은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승리를 거두며,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한편 전주는 다음달 6일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고양FC축구단과 한판 승부를 펼친다. /정은성 기자

## 검도 꿈나무들의 기량 마음껏

춘계 전국 중·고교 검도대회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

정읍사에서 열린 제64회 춘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 대회 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정읍시국민체육센터에서 3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내 중·고등학교 검도 엘리트 인재 육성을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중·고등학교 연맹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검도회와 정읍시검도회가 주관했다.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개 팀 1,000여 명의 중·고등학교 검도 꿈나무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열린 경쟁 끝에 인천고(인천/남고부), 과천고(경기/여고부), 부원중(인천/남중부), 서원중(충북청주/여중부)이 단체전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 개인전에서는 송명철(인천고/남고부), 김민(과천고/여고부), 신정우(광명중/남중부), 원소운(서원중/여중부) 등 4명의 우승자가 소속

학교의 명예를 빛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최 측인 한국 중·고등학교 검도 연맹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철저한 방역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대회를 진행했다.  
대회는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선수단을 비롯한 관계자는 모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소견서를 제출해야만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회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단 경기장 입장을 허용하고, 경기장 곳곳에 방역 요원을 배치해 대회장 내외부를 수시로 소독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예정된 전국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



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참가와 관람을 위해 선수단과 관계자, 학부모 등 전국에서 총 1,100여 명이 정읍을 방문했다. 이들은 지역 내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정은성 기자

## “태권도 봉사사업 추진 최선”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봉사단 수료식 '메타버스'로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은 지난 25일과 28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2021 태권도 봉사단'의 수료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메타버스 방식을 도입, 대면과 비대면을 적용한 수료식으로 진행했다. 태권도원 도약센터를 메타버스 공간 내에 구축해 수료증 전달과 태권도 봉사단 활동 중에 있었던 추억을 나누었다. 또한 봉사단 활동 기간의 사진들을 전시해 소중한 경험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태권도 봉사단은 태권도 전공자들을 해외로 파견해 태권도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파견이 제한됨에 따라 2021 태권도 봉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태권도 교육을 진행했고, 지난 달에는 온라인 태권



도 교육 봉사를 통해 8개국 460명의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단원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해외 파견을 하지 않았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과 봉사단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태권도 해외 보급은 물론 인도주의적 활동까지 진행할 수 있는 봉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순창군청 윤희욱, 개인 단식 우승

순창서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

순창군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 43회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번 대회는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정인선)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가 주관하였으며 순창군이 후원하여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순창군 공설운동장과 제일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장에서 개최됐다.  
전국의 초·중·고·대학생, 일반부 등 총 101팀, 1,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  
순창군과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의 협력을 통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단이 대회 참가 일 하루 전과 대회 참가 후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전 경기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는 등 그 어느 대회 때보다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이번 회장기 대회가 순창에서 개최된 만큼 홈팀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 2022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바 있는 순창군청의 에이스 윤희욱이 개인 단식 결승전에서 문경시청 문대용과 접전을 펼친 결과 세트스코어 4:2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단체전 결승전에서는 강적 수원시청을 만나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군 관계자는 "불편이 따르지만 방역수칙을



제43회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가 순창에서 열린 가운데 윤희욱(순창군청)이 경기에 임하고 있다.  
철저히 준수,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협조해 준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와 참가 선수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